



•Beit-El Salam(평화의 집) 메시지: 위기외 소외의 상황에서의 선교에 대한 WCRC 토론에의 기고문

아시아, 아프리카, 캐리비안,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의 26개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사회 운동가로 이루어진 우리 집단은 2019년 11월 7-11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Beit-El Salam(평화의 집)에서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전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집단으로서 다수 집단으로부터의 폭력과 소외를 자주 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증언과 평화적 공존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교적 질문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종교적 폭력이라는 상황에서의 평화, 정의, 화해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틀을 찾으려는 총회의 요구를 응답하는 기초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집단으로서 근래 상당한 정치적 대변동이 있어 온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 의미의 소수집단 뿐 아니라 인종, 민족, 계급, 경제적 억압, 성별 그리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관점에서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전 세계 또 다른 상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또한 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권력주의, 근본주의 그리고 극단주의가 다양한 종교들과 다시 떠오르는 파시즘과 연결 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적 아파르타이트로 묘사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언자적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종교적 근본주의를 강력히 인지하게 되었고 한 집단의 근본주의가 또 다른 근본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 세상에 근본주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종교는 없다. 이는 신학과 교회 신학이 중요적 정치의 종교적 정당화와 정치의 신성화 및 이상화의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정의의 실현 없이는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하다.

이 회담의 참석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커뮤니티 내에 있는 다수집단의 상황에 있는 자들과 소수집단의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로서부터의 다양한 경험들을 제시하였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수와 소수의 처지가 얼마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수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힘과 접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한 개인이 역량을 개발시키는 기회라는 개념으로 소수를 정의한다. 그러므로 소수자들은 사회와 교회에의 중요한 참여로부터 제외 된 자들이다.

본 회담은 전 세계의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의견을 들음으로써 종합적인 위기에 대한 상황적 전지구적 분석을 제의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선교의 상황은 세계적인 제국의 상황 안에서의

선교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제국이 오늘날 이 세상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이고 군사적 권력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인류가 만들어낸 군주자 없는 지배의 현실과 정신으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는 제국의 아래에서 스스로를 발견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의 논의는 식민주의 역사들과 계속되는 영향을 상기하며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자본을 얻기 위한 경쟁과 집단들 간의 대항으로 인해 생긴 계속되는 경제적 정치적 재 식민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종교가 인종, 언어, 그리고 민족에 따른 결집지로서 삶, 생계, 그리고 존엄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집단들을 양극화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지 이해하였다.

제국의 한 가운데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들은 권위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념들과 신학들이 어떻게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데에 쓰이고 약자들을 외면하는 데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였다. 경제적 생태적 이민은 우리의 인구학적 전망을 변화시키며 적의는 환대는 적의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커뮤니티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더욱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부르는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부름받았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회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아갈 것을 요청 받는다. 이것은 함께함(withness)의 연대로서, 참석을 넘어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려진 이들에게서 들으며 그들을 앞세우기를 강구하는 연대이다. 우리는 우리 또한 그리고 특별히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소외된 집단들 안에 있는 이들과의 연대의 행동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특히 소외가 가중된 여성, LGBTQI+, 이주자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증언하는 데에 부름받았다.

권력을 가진 수적 소수의 입장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연약하며 박해받는 교회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공동체들 내에서 교회들이 타인들, 특히 다른 소수자들이나 자신들의 공동체 내의 소수자들에 대한 박해에 연루되어 있기도 한다.

심지어 박해받는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예외성과 정복의 종교로서 기독교 역사에서부터 떠오르고 있는 제국주의자의 야망을 품고있는 그들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미 6:8)는 성경의 요청을 되새겨야 한다.

수적으로 소수이나 그들의 세계적 경제적 연줄로 인한 강력한 권력과 특권을 가진 교회들이 있다. 그러한 교회들은 소외받고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앞세워야 하는 그들의 소명을 자각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억눌린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칼빈이 말했듯, "자연에 대한 의식과 정의에 대한 요구로부터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울음은 마침내 주님께 상달되었다 ... [억눌린 자들은] 이러한 질서와 정의의 혼란이 용납되지 않는 것임을 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주님께 의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들으신 것과 같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불의로 인해 울부짖을 때 단지 듣고 계시기만 하지 않고, 그들의 울음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되시는 것이다. 칼빈은 불의를 당하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울며, 그 때문에 옳고 정의롭게 행하는 자들까지, 모든 "불의를 품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말한다. 그들의 울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들으시며, 또한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상처가 치유된다.

제국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 시대의 제국이 소수민족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공포에 떨게 하며 그들을 가르고 통치하기 위해 일하며 이것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저항과 분투의 특권을 요청받는다. (약 4:7) 우리는 이것이 특별히 고통과 억압의 상황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으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심을 보아왔다 (시 34:17).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로서, 다수 공동체로부터의 빈번한 폭력과 소외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증언과 평화적 공존을 시작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교적 질문을 숙고하며 논의하였다. 우리의 신앙은, 죄와 사망의 힘, 공포와 무력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의 승리를 통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한다. 우리는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딤후 1:7) 소외된 자들을 앞세우고 그들과 여정을 함께하는 예언자적 증언의 임무에 헌신한다.

2019년 11월 10일